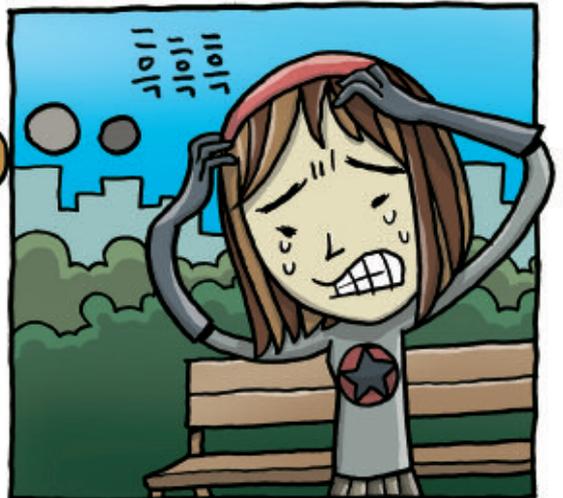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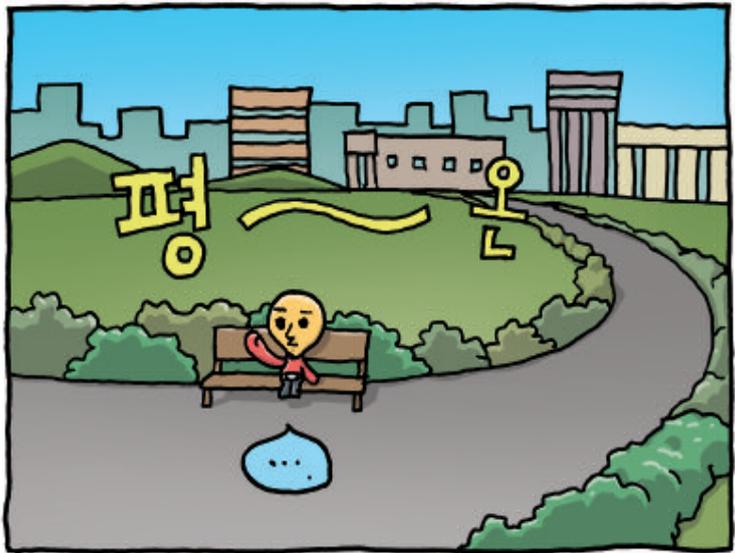


**특명 5** 빛 알갱이 하나로 바뀌는 세상  
글 현수랑 그림 김준



지난 줄거리 : 스틸로의 엉뚱한 행동 때문에 계속 임무를 실패한 검은별 군단 뺑아중, 스틸로를 없앨 함정을 파지만 너무 깊게 파서 자신이 빠져 나오지 못한다. 스틸로는 지나가다 바보처럼 함정에 빠지지만 피램 덕분에 뺑아중도 구하고 데이터도 구하게 된다. 뺑아중은 또 다른 계락을 꾸미는데...











제가 해킹을 한 악당을 잡겠어요!

?



분명 검은별 군단 짓일 거예요.

그... 그런데... 어떻게 잡지?



지금 이 컴퓨터는 양자점을 이용한 초고속 광통신을 실험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킹했는지도 금세 알 수 있을 거예요.



## ■ 양자점이란?

양자점은 InGaAs(인듐갈륨비소)로 만든 나노미터(1nm = 10억분의 1m) 크기의 점을 말해요. 이 점들은 에너지를 받으면 빛 알갱이(광자)를 내놓는데 이 빛 알갱이를 이용해 레이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레이저로 엄청나게 빠른 레이저 송수신기를 만들어 초고속광통신에 이용할 수 있지요.

또 양자점 하나에서는 하나의 빛 알갱이가 나오기 때문에 광통신 중간에 누군가 해킹을 하면 빛 알갱이가 사라져 금세 해킹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 양자점을 생체 분자와 결합시켜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지요.

미래에는 나노미터 크기의 양자점 하나에 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디지털 신호 0과 1로 표시하는 양자컴퓨터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IST(키스트) 나노소자연구센터는 이렇게 세상을 바꿀 양자점을 연구하고 있어요.



나노소자연구센터  
최원준 박사



